

해의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성탄절이다.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낙심도 하고, 상처도 받는다. 이 크리스마스가 우울하고 외로운 크리스마스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. 왜 그럴까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을 바라보고, 기대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. 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. 그런데 정말 세상에 그런 믿음의 대상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. **왜 세상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는가?**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, 특히 창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결국 인간은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(한국 속담에 “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”는 말이 있다).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살라고 한 적이 없다. 환경, 현실,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마라는 것이다. 누군가에게 좋은 점을 배울 수는 있다. 그러나 바라보고, 의지하고, 기대하는 순간 실망과 상처가 오는 것이다. **그러면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말인가?**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고,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다. 그리고 도울 때는 그가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. 기대하고 요구하면 그것도 동기가 되고, 상처가 된다. 내가 돕는다고 완벽하게 도울 수도 없다. 그들이 결국 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야 한다. 본문 2절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요,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이다.

1. 왜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는가?

1) **그 분만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,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.**

- ① **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도움을 받을 때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,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.** 변하지도 않아야 한다. 자기를 완전하게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.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.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요,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(골1:15-17)
- ② **유대인들이 그리스도(메시아)를 기다려 놓고도 그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유는 하나이다.** 그 분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된 것이다. 신성 모독죄다(요10:33). 그 분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.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없다.
- ③ **그러면 그 분이 하나님 자신이요,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뭔가? 성경은 두가지를 예언하셨다.**
첫째는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다는 예언이다(창3:15, 사7:14).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갖느냐? 그래서 그 분은 하나님 아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. 마리아도 중요하지 않다. 그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도구일 뿐이다.
둘째는 그 분이 부활하신다는 것이다(시16:10, 행2:27, 롬1:4). 세상에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다.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.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.

2) **그 분만 내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(근본 문제)을 해결 하셨기 때문이다.**

-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가지 근본 문제에 빠진 것이다.
- ① **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(롬3:10, 롬6:17).**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. 죄의 권세가 주장하는 인생이 되었다.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 것이다.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장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내 죄(원죄의 저주)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것이다(롬8:1-2)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(slave)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의의 종(servant)이 된 것이다(롬6:18). 이제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, 세상의 유혹과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. 그래서 본문 1절에도 “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라”는 것이다. 넘어져어도 또 다시 시작하면 된다(요일1:8).
- ② **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죄의 종만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(요8:44).** 때로는 착하게 사는데도 여러 문제와 갈등이 계속 된다. 그것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 하는 사단이다(요10:10) 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. 세상의 어떤 정치인도, 영웅도 안 된다. 오히려 더 무너진다.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면서 뱀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권세를 깬 것이다(요일3:8)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.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, 내 인생에 문제를 가져다 주고,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권세에 싸울 수가 있는 것이다(눅10:19). 싸운 만큼 큰 믿음이 증거를 얻게 된다(계17:14).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도(믿음이 약한 자, 가족, 성도) 영적 싸움을 해줄 수 있다(엡6:18).
- ③ **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(엡2:1).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잃은 자가 된 것이다.**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빠져 살고,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얻어도 허무하고 외로운 것이다.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, 진리를 알게 하시고, 새생명을 주신 것이다(요14:6). 우리는 길을 찾은 자이다. 허무한 것에 빠져 살 인생 아니다. 잠시 헤메다가도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다.
- 3) **내가 겪는 문제와 고통이 무엇인가? 이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되게 하고, 그 분을 바라보라는 것이다.** 어떤 경우도 환경, 현실, 사람 바라보는 순간 무조건 사단에게 속고, 결국 잠시라도 실패하는 길을 가게 된다. 그 환경이 좋아 보일수도 있다(뜻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). 현실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. (요나처럼). 불신자가 오히려 힘이 있고,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. 그래서 신자가 실패한다.

2. 내 평생의 시간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라. 흔히 “신앙 생활을 한다”는 말이 이 말이다.

- 1) **매일 3오늘(오늘의 말씀, 오늘의 기도, 오늘의 전도-하나님과 통하는 세가지) 놓치지 마라.**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. 나만의 기도 찾아서 계속 힘을 얻고,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. 내 문제를 통해 세상을 보면서 내가 도울 사람을 찾아 이 그리스도를 전해보라. 오히려 내가 살아난다. 일심, 전심, 지속으로 해보라. 일심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. 전심은 간절한 것이다. 지속은 계속 가는 것이다
- 2) **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는 시간이 온다. 하나님이 잠시 어려움, 실패, 외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다.** 이때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, 그리스도로 행복하고,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체험하는 시간이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다. “나 하고만 사랑을 나누어 보자”는 것이다”.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전부 이 시간이 있었다. 다윗은 악신들된 사울에게 쫓겨 다니며(시62편), 베드로는 실패 속에서 이 시간을 체험했다(요21:15-17)
- 3) **그 분이 나의 오직일 때만 나의 하는 일이 유일성이 되고, 내 현장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.** 그 분이 축복하는 일이 된다. 누가 막을 수 있는가? 그 분이 내 삶의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. 채 창조다. 그 비밀을 가지고,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, 세상을 바꾸는 자로 살다 가는 것이다(세계복음화와 제자)

결론-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요 성탄절을 맞은 오늘,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한다.